

멈춰선 수출 컨테이너...지역 물류대란 현실화되나

기아차 광주공장 등 생산차질 대비
광양항·여수산단도 대책마련 돌입
장기화 국면시 지역 경제 타격 예상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가 7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민중노총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항만·산업단지 등 지역 물류 거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조 측은 '안전운임제' 개선 등이 보장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만큼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화물연대와 각 기업·관공서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광주·전남 화물차 기사 5,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2,000명(조합원 1,500명·비조합원 500명), 전남은 3,500명(조합원 2,800명·700명)이다.

이에 광주지역 주요 사업장들은 물류 대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대비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차 광주공장)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원자재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생산 차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에 동참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소속 카게리어화물노동자는 108명으로, 이는 평소 생산 물량에 따라 반·출입되는 차량을 운영하는 노동자 수의 절반 가량이 달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80명의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했다. 곡성·평택·광주 등 국내 공

장에서 생산된 타이어가 광양항 및 광양물류센터로 옮겨지는데, 광양항은 현재 멈춰있는 상태다.

각 부지에 완성품을 보관할 창고가 마련돼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공용 부두에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트럭 600여 대를 이용해 화물의 진·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0대의 차량이 반·출입했던 이곳은 파업이 시작된 후 차량의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지에도 600여 대의 화물 트럭이 거점별로 흩어져 투쟁에 들어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 장치용(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61% 수준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단기간 운송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번 파업에 대해 '엄중 대응'을 선포하는 등 갈등이 고조돼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관계기관과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열어 파업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 임시 컨테이너장차량과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파업사태로 인한 동향 파악 중에 있으며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자가용화물차량운송수송허가증 신속 발급과 톨게이트 비경감 혜택 등 대응에 나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광양항 항만물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도 총파업 선언

근로조건 개선 등 촉구

전국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도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중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지부

는 7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그늘 한점 없는 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는 열악한 노동자에게 그동안 지속해서 지급해 왔던 하계 유급휴가마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하계 유급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러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불법 하도급을 철폐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 협력회사 중 하도급 비율은 58%에 이르는 등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현장도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협력업체라는 간판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도급자의 지위를 가진 한전이 배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홍승현 기자

'윤석열 사단'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

새 정부 핵심 보직 맡을 듯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 박찬호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7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중 한 명이다. 대검 중수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그는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아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에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해 참모로서 윤 대



통령을 보좌했다. 당시 그는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허명수 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어진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호남 출신인 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요직에 잇따라 검찰 출신 측근을 기용하고 있는 만큼, 사직서를 낸 박 지검장 역시 조만간 검찰 밖 핵심 보직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제 사직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밖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검찰을 항상 응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5월 광주·전남 강수량 2.9mm...역대 최저

올해 5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2.9mm로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2.9mm로 전국에 기상 관측망을 갖춘 1973년 이래 가장 적었다.

강수 일수 역시 3일에 그쳐 역대 하위 2위였다. 상대 습도도 62%로 가장 건조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강수량이 가장 낮은 이유로 중국에서 중앙 시베리아까지 남북으로 주된보다 기압이 높은 '기압 마루'가 폭 넓게 형성

돼 주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치거나, 저기압 주변 공기도 모이지 않아 강수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봄철 기온(3-5월)은 13.7도로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 평년 12.6도 보다 1.1도 높았다.

특히 평년보다 높았던 3월(+1.6도), 4월(+1.5도)이 봄철 고온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민찬기 기자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66 열정의 60년 더 나은 미래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매년 7월 11일 인구の日

2022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 과정 운영 [주1~2회, PM 7시~11시]

| 구분 | 일정 | 비고 |
|---------------------|--|--|
|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 2022. 6. 7.(화) 09:00 ~ 6. 16.(목)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t.jnu.ac.kr |
|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 2022. 6. 7.(화) 09:00 ~ 6. 16.(목) 18:00 |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
| 전형일시 | 2022. 6. 28.(화)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
| 합격자 발표 | 2022. 7. 15.(금)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정원외)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생략)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지 중심의 교육 실시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 530-1607 팩스 062) 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gsit.jnu.ac.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